

미국 Extension Service에서의 가정관리학 분야의 통합적 실천!

왜 가정관리학 분야만의 통합적 실천인가?

박 명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우선 Extension Service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Extension Service 분야를 태동시킨 Land Grant College 의 하나인 Ohio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프로그램소개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Extension Service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자치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미국의 경우 Extension Service 부서에서 하는 일이며 조직 또한 지방자치단체(County)에 있는 Extension Office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 부서에 존재하는 주민 자치센터의 업무를 가정복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적 및 실질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지지해 주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Extension Service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가정학이 발전되었음을 볼 때 한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자치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Extension Service 지원이 가정학을 중심으로 발전된 반면 한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이나 제도는 만들어 졌으나 이러한 제도가 가정학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되었다기보다는 사회복지, 행정자치차원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정학 전공자들의 참여기회가 여의치 않은 것이 미국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Extension 조직과 프로그램의 파트너는 지역대학의 협동프로그램으로 개발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연구하고 교육의 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원고에서 소개된 미국의 프로그램을 보면 Extension Service 분야의 제목이 가정관리학 분야의 통합적 실천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정학의 통합적 실천이라는 제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의 Extension Service는 전통적으로 가정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며 현재의 프로그램도 의, 식, 주, 가정관리, 가족, 아동, 소비자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원고에서 구분한 목차 II 와 목차 III을 놓고 볼 때 내용 면에서 구분되는 점이 어떤 것 인지요?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때 가정관리분야의 통합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농촌가정의 생활개선에서 시작하여 도시가족까지 그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처럼 우리 나라의 경우도 농촌가정의 Extension Service부서인 농촌생활지도사 제도가 도시까지 서비스를 넓히도록 계획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변천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정학 전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수도권신도시나 도농 복합지역 등의 경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가정학이 소개되고 우리가정의 생활개선에 기여한지도 반세기가 넘은 현재, 가정학 전공자들의 주도하에 Extension Service 부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한편으로는 유감으로 생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가정학 전공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통합적 실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므로 세부 분야의 연구를 통합하여 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연구와 가정학 전공자들의 현장에서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